

BTS 정국, 빌보드 '핫100' 세 곡 연속 톱5...K팝 솔로 처음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이번 주 ‘핫100’ 5위로 데뷔
‘글로벌 200’·‘글로벌(미국 제외)’엔 1위로 진입 성공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이 K팝 솔로 가수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톱5에 세 곡을 연속해서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13일(현지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18일자 예고기사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 3일 발매한 첫 솔로 앨범 ‘골든(GOLDEN)’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이번 주 ‘핫100’에서 5위로 데뷔했다.

지난 7월과 9월에 각각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Seven)(feat. Latto)’(1위)과 두 번째 솔로 싱글 ‘3D(feat. Jack Harlow)’(5위)에 이어 톱5 진입 성적이다.

‘핫 100’은 피지컬 싱글 및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해 노래의 성적을 총망라한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실물·디지털 음원 판매량 집계에서 9만9000점을 획득한 데 이어 스트리밍 1060만 회, 라디오 청취자 40만 명 등을 기록했다.

미국 현지 풀뿌리를 인기를 반영하는 차트라 해외 가수가 정상을 차지하기 힘든데 정

국은 방탄소년단 멤버로 여섯 곡을 해당 차트 1위에 올렸다. 특히 ‘세븐’으로 팀 동료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에 이어 K팝 솔로가수로는 두 번째로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썼다.

아울러 정국은 ‘핫1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다곡 진입 기록도 썼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발표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22위),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슈가가 프로듀싱한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 ‘세븐페이스츠: 착오(7FATES: CHAKHO)’ OST ‘스테이 얼라이브(Stay Alive)’(Prod. SUGA of BTS)(95위), 호주 래퍼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영국 래퍼 센트럴 시(Central Cee)와 협업한 ‘투 머치(TOO MUCH)’(44위) 등 총 여섯 곡을 ‘핫100’에 올렸다.

‘강남스타일’(2위), ‘젠틀맨’(5위), ‘행오버’(26위), ‘대디’(97위), 슈가 협업곡 ‘갓갓’(80위) 등을 ‘핫100’에 다섯 곡을 올린 가수 싸이(PSY)를 제치고 단독으로 ‘핫100’ 최다 진입곡 보유 K팝 솔로 가수가 됐다. 특히 싸이를 넘어 ‘핫100’ 톱10에 3곡을 올린 유일

한 K팝 가수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1위로 데뷔했다. ‘세븐’과 ‘3D’에 이어 두 차트 세 번째 정상이다.

앞서 정국의 ‘골든’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 예고됐다. 21만2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발매 첫 주 미국에서 K팝 솔로 가수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지에서 발매 첫주에 2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K팝 솔로 가수는 정국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가 이번 주 ‘핫100’ 1위를 탈환했다. 이 곡은 지난 주 스위프트의 앨범 ‘1989(테일러스 버전(Taylor’s Version))’ 수록곡 ‘이즈 잇 오버 나우(Is It Over Now)?’(테일러스 버전)에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정상에 복귀했다. 스위프트는 자신의 곡으로 1위 자리를 연이어 바꿔치기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스(The Beatles)’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Now And Then)’은 이번 주 ‘핫100’에 7위로 데뷔했다. 비틀스의 서른 다섯 번째 톱10 진입곡이다. 비틀스는 이 곡으로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티빙 ‘스릴러’ 40주년 다큐 다음달 공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982년에 내놓은 명반 ‘스릴러’ 발매 4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스릴러 40’이 다음 달 티빙을 통해 국내 최초 공개된다. 티빙은 12월2일 티빙 파라마운트+ 상영관을 통해 이 작품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1983년 마이클 잭슨 전기를 펴냈던 음악사학자 넬슨 조지가 연출한 ‘스릴러 40’은 잭슨의 명반 중 하나로 꼽히는 ‘스릴러’에 초점을 맞춘 생전 기록 영상이다. 전세계에서 1억400만장

이 판매된 ‘스릴러’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수록곡 ‘빌리진’(Billie Jean) ‘비트 잇’(Beat It) 등 뮤직비디오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스릴러 40’은 지난해 전 세계 단 8개 도시에서 비공개 상영회를 갖기도 했다. 국내에선 그 해 11월30일 CGV용산에서 단 1회 상영됐었다. 공식 예고편엔 어서, 메리 J 블라이즈, 블랙 아이드 피스 윌아이엄, DJ 겸 작곡가 마크 론슨, 발레무용가 미스티 코플랜드 등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과 아티스트가 잭슨과 ‘스릴러’에 관해 말하는 인터뷰가 담겼다. 어서는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같이 춤추고 싶다”고 말하고, 메리 J 블라이즈는 “문워크는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윌아이엄은 “‘스릴러’는 현대 팝의 청사진이며 지금 발매됐어도 최고의 명반”이라고, 마크 론슨은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한다.

뉴진스, 데뷔 1년3개월 만에 ‘월드클래스’ 행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데뷔 1년3개월 만에 세계적인 무대에 초고속으로 입성하는 등 월드클래스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 결승전에서 오프닝 공연을 한다.

20일에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s)’ 퍼포머로 나선다. ‘월드컵’과 ‘BBMAs’는 각각 e스포츠와 음악 부문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와 시상식이다.

뉴진스는 K-팝 그룹 ‘최단기’라는 수식어를 달고 두 무대에 연달아 오르며 ‘글로벌 아티스트 위상’을 확인한다.

뉴진스가 K-팝 그룹 완전체로는 처음으로 오프닝을 장식할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은 동시 최고 접속자 7400만 명(2021년 기준)에 달한다. 스포츠 경기 중 슈퍼볼보다 많은 시청자수(2019년 기준)를 기록했다.

그간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 무대에 이매진 드래곤스(Imagine Dragons)(2014년), 릴 나스 엑스(Lil Nas X)(2022년) 등 역대 주제를 부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했다. 이러한 월드클래스 반열에 합류한 뉴진스는 올해 월드컵 주제곡 ‘갓즈(GODS)’ 퍼포먼스를 최초 공개하며 결승전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월드컵’ 결승 자체도 인기인데, 뉴진스가 ‘갓즈’ 첫 무대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수백만원짜리 압포가 온라인에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BBMAs’는



매년 역대급 가수들로 구성된 화려한 퍼포머 라인업으로 유명하다. 뉴진스는 K-팝 걸그룹 최초이자 남녀 통틀어 K-팝 그룹 데뷔 후 최단기간(1년3개월)에 ‘BBMAs’ 퍼포머로 뽑혔다. 뉴진스는 올해 ‘BBMAs’에서 K-팝 아티스트로는 가장 많은 수상 후보(총 5개)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매체 피플(People)과 인터뷰에서 뉴진스는 “정말 놀랐다.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우리 음악이 해외 대중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됐다는 데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8월 미국 매체 아이 콘 빌리 아이리시(Billie Eilish) 등이 헤드리이 너로 선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올라 약 7만 명의 패장을 이끌어냈다.

‘월드컵’ 결승전 오프닝 공연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2023 BBMAs’는 20일 오전 10시부터 ‘BBMAs wat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 청년포럼’ 세븐틴, 佛 뜨자 팬·미디어 ‘들썩’

지난 12일 파리 도착...오늘 특별 세션 참여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유네스코 본부 연단에서는 그룹 ‘세븐틴’(SVT)을 향한 전 세계 팬들과 해외 미디어의 관심이 뜨겁다.

14일(이하 한국시간)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인 유네스코 총회 기간에 열리는 ‘유네스코 청년포럼’ 스페셜 세션 참석을 위해 12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공항은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븐틴은 15일 오전 3시30분부터 현지에서 유네스코 특별 세션에 참여한다. 유네스코 본부 메인홀에서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대표해 약 1시간 동안 연설과 퍼포먼스를 펼친다.

세븐틴은 ‘청년 간의 연대와 교육이 청년

과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는 주제로 연설한다. 이후 ‘월드(WORLD)’·‘달링(Darling)(ENG ver)’·‘헤드라이너(Headliner)’·‘음악의 신’·‘같이 가요(ENG ver)’ 등 총 5곡의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유네스코 청년포럼 취지에 맞는 별도의 공연 영상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플레디스는 “공연 세트리스트는 세븐틴의 연설 주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 세션 방청객 550명을 모집했는데 예약 오픈 직후 3600여 명이 몰려 조기에 마감됐다. 역대 세션 행사 중 최다 모집 인원이다.

유네스코도 부푼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네스코는 공식 홈페이지에 “세븐틴의 참여로 인해 청년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고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데 힘을 더할 것”이라며 “세븐틴과의 이번 협력은 예술과 행동을 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와 집단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에서 온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1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그룹 세븐틴이 청년포럼에서 스페셜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모두를 초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세븐틴은 글로벌 뉴스 통신사 및 현지 특파원들과도 대대적인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세븐틴의 세션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박진영·김완선, 80년대 바이브 제대로...‘폐어 안무’ 공개

오는 20일 신곡 ‘체인지드 맨’ 발표

‘영원한 판파라’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원조 디바’ 김완선이 극강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박진영의 신곡 ‘체인지드 맨(Changed Man)’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

박진영과 김완선이 ‘플래시댄스’와 같은 80년대 영화에서 등장한 재즈 댄스를 기반으로 추는 폐어 안무가 담겼다. 두 사람은 그 시절 스타일링까지 완벽 소화했다. 실직한 핑크 슈트, 디스코풍 원피스, 파격 헤어스타일 등 80년대 음악 방송 무대에서 불멸의 스타일이다. 두 슈퍼스타가 사랑에 빠졌다가 스캔들로 헤어지고 현재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스토리로 보는 재미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신곡은 박진영이 가장 사랑하는 80년대 감성을 녹여낸 신스팝 장르다. 음악, 춤, 패션, 뮤비까지 모든 요소에서 그 시절 정취를 가득느

낄 수 있다. “살짝 흔들려도 네 눈에 안 보여 마음 속에선 달을 넘어 별을 지나서 난리 나도 절대 안 보여줘 완벽한 내 컨트롤을 젠틀하게 돌아서네 아쉬운 맘은 물어둔 채 아열 어 체인지드 맨(I’m a changed man)”이라는 드라마틱한 가사도 흥미를 자극한다. 박진영은 지난 1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예전에 날라리였던 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행동은 달라졌는데 속은 아직 하면 안 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절리는 내용”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디지털 싱



글 형태로 오는 20일 발매된다. 박진영은 신곡 발표에 이어 내달 30-31일 8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단독 콘서트 ‘에이티스 나이트(80’s Night)’를 연다.